

효성, 브라질서 스판덱스 마케팅 강화

3월12일 <크레오라> 워크숍 개최 ... 1만톤 공장과 함께 시장기반될 것

효성은 3월12일부터 5일간 브라질에서 스판덱스(Spandex) 브랜드인 <크레오라>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.

스판덱스 워크숍은 2011년 가을·겨울시즌의 의류 아이템별 유행 전망을 소개하고, 고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이다.

효성은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에 총 1억달러를 투자해 2011년까지 스판덱스 1만톤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3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.

효성 관계자는 “브라질 워크숍은 원사 생산기업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글로벌 고객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”라며 “브라질 공장 완공 이후에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토대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효성은 3월 홍콩과 중국 Guangdong,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워크숍을 진행했으며, 브라질 워크숍에는 헤링 등 160여개 현지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초청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08>